

# 經濟行爲에 대한 社會學的 接近(序說)

金 晋 均

.....〈目 次〉.....	
I. 經濟學과 社會學	3. 經濟體系와 他 社會體系
II. 經濟體系	III. 生 產
1. 社會體系	IV. 消 費
2. 經濟體系	

## I. 經濟學과 社會學

이 글은 生産과 消費行爲의 社會·文化的 基礎를 규명코자 하는 社會學的 準據를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도적으로 經濟行爲가 貨幣經濟의 條件 아래서 工業化하는 하나의 社會를 예컨대 韓國社會를 念頭에 두고 工業生産體系와 貨幣經濟가 社會成員들의 經濟行爲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적응케 하는가 또는 [社會成員의 社會的 行爲를 政治的 共同體的 家族的 宗教的 審美的 側面등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要素들이 經濟的 行爲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면서 工業生産體系와 貨幣經濟라는 經濟體系에 適應하거나 適合하는가에 중요한 觀點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經濟行爲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經濟的 變數와 非經濟的 變數와의 關係가 끝까지 다루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社會科學의 專門化는 그것대로 충분히 分析상의 利點이 있다. 특히 오랜 歷史동안에 經濟學은 다른 어떤 社會科學의 분야보다도 人間의 行爲를 다루는데 있어서 잘 統合된 概念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따라서 고도 水準의 形式的 完全성을 확립하여 體系의 組織된 知識으로 따라서 한정되고 분명한 概念圖式에 適合하는 人間行爲의 部分을 추상화시켜 왔다. 複合的이고 複雜한 人間行爲에 대하여 經濟的 分析의 方便으로 經濟學은 몇가지 기본적인 假定을 하였다. 그것은 첫째 個別의 人間의 行動에 관한 假定으로 經濟的 合理性을 전제한다. 즉 消費者의 嗜好가 거의 변함없으며 또한 消費者는 언제나 자기 돈으로 최대의 價値를 얻으려 하고 실제로 원하지 않는 물건에는 일부러 支出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企業家들의 주된 目的은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보아, 消費者들은 자기의 돈을 支出함으로써 極大의 滿足을 追求하며, 企業家들은 極大의 貨幣利潤을 追求한다

고 假定한다. 둘째는 物理的 構造에 관한 것으로 經濟學은 物理的으로 不可能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즉 財貨의 稀少性을 가정한다. 셋째는 社會的 經濟的 制度에 관한 것으로 例컨대, 政治制度 法律 經濟組織등의 安定性을 가정한다<sup>(1)</sup>. 그리하여 經濟學은 經濟行爲가 내포되는 非經濟的 世界의 複雜性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假定에 입각하여 非經濟的 變數를 과도하게 단순화시켜 理論的 一般性을 도출하고 經濟問題에 대한 멋진 理論的 解決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經濟學은 P.A. Samuelson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主題를 갖는다.

「사람들과 社會가 貨幣를 使用 또는 使用치 않든간에, 稀少生産資源을 여러가지 方法을 통하여 어떻게 選擇 動員하여 상당한 기간을 걸쳐 商品을 生産하여, 현재와 미래에 그 社會의 사람들과 集團들간에 消費하도록 分配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sup>(2)</sup>.

이 定義에 따르면, 經濟學의 從屬變數는 첫째는 商品이라는 것인데, 말하자면 한 社會의 財貨와 用役의 總生産水準은 어떠한 어떤 種類들이 어떠한 比率로 生産되는가 하여, 經濟學은 生産의 水準과 構成을 설명한다. 둘째의 從屬變數는 稀少生産資源으로서 經濟學은 生産에 사용되는 資源의 水準 및 相對的 比率와 그 資源들이 組合되는 方法을 설명하는 것이다. 財貨와 用役의 生産은 다음과 같은 生産要素가 適用되는데서 이루어진다. (1) 土地, 또는 自然資源, 文化的 價値, 技術知識의 狀態, (2) 勞動, 또는 人間의 動機와 技能水準, (3) 資本, 또는 直接的인 消費보다도 未來의 生産에 유용한 資源의 水準, 그리고 (4) 組織, 또는 他要素들의 組合과 再組合의 原理로서 組織에는 企業家의 活動은 물론, 財產과 契約과 같은 制度의 運用도 포함된다. 셋째의 從屬變數는 分配로서, 어떤 個人들과 集團들이 生産過程에서 창출된 財貨와 用役을 수용하는가 또는 經濟過程에서 창출된 所得의 分配는 어떠한가를 설명한다<sup>(3)</sup>.

生産, 資源組織의 技術과 富의 分配라는 基本的인 從屬變數는 巨視的으로는 政治的 規制, 慣習, 宗教등과 같은 要素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볼 수 있으나, 傳統的인 形式的 經濟分析에서는 從屬變數의 直接的인 獨立變數로서 市場의 需要供給을 강조하였다. 즉 商品의 價格은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이 마주치는 그 點에 선다는 需要供給의 原理에 따라서 生産

(1) A.W. Stonier and D.C. Hague, *A Textbook of Economic Theory* (3rd ed.), Longmans Green and Co. (丁炳然 역, 『新經濟原論』, 增補改譯版, 博英社, 1970, pp.13~15).

(2) Paul A. Samuelson, *Economics: An Introductory Analysis*, 7th ed. McGraw-Hill, 1967, p. 5.

(3) P.A. Samuelson, *ibid.* pp.4~5 및 Neil J. Smelser,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Prentice-Hall, Inc., 1963, p. 24.

의水準과構成, 生産要素의水準과構成 및 여러個人과集團이 차지하는所得의比率이 설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變數간의關係 즉 설명모델은完全競爭모델이거나 또는從屬變數를 달리 설정한 Keynes의均衡모델이 유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4)</sup>.

특히經濟的合理性이라는假定아래서, 需要供給의原理로 生産資源組織의技術 및富의分配를 설명하는經濟的分析은 분명히 발전된貨幣制度가 있으며 複雜化한産業社會에 있어서의經濟活動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복잡한西歐社會에 적합하고 고도로 발전된技術的經濟學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하여 人類學者들은 그들의 연구대상이 되는未分化되거나半分化된社會의經濟活動을分析하는데 아주適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複雜한社會에 있어서는經濟活動들이 아주 잘 분간되기 때문에經濟活動을分離시켜 연구하는 것이 용이하지만單純한社會에서는 어떤活動이 쉽게 분간되지 않으며, 어떤活動이 동시에經濟的이고宗教的이며政治的이고家族的이기 때문에 단순한社會의經濟生活를分析적으로分離시켜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해진다. 人類學者들의單純한社會는 대부분이小農體系로서 거의機械가 없는 단순한技術를 이용하며貨幣가 없거나 있다하여도 극히 한정된범위의去來에만使用되므로 대부분의經濟關係를測定할 수 없다. Raymond Firth, Bronislaw Malinowski, Marcel Mauss 등의 人類學者들의 연구는 단순한社會의經濟活動이族長制氏族制親族制의原理에 합치되거나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人類學者에게는社會的 行爲의“總體的”性格을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sup>(5)</sup>. 經濟體系는社會的 政治的 儀式的道

(4) N.J. Smelser, *ibid.* pp. 24~25.

「完全競爭모델은 個別企業이 完全競爭下에서 生産하게 되는 어떤 商品의 量을 예측하는데 관한 것이다. 어떤 需要水準이 주어 진다면 한 企業體가 生産하는 各 品目에 대하여 어떤 價格(수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企業體 자체는 生産에 동원한 要素에 대하여 지불을 해야만 한다. 이 費用이 商品을 消費者에게 供給하는 條件을 決定한다. 일련의 構成過程을 통하여 經濟學者는 企業體가 商品의 추가량을 생산하는 費用(限界費用)이 그 추가량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限界收入)과 같아지는 만큼의 商品量을 生産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 근본적으로 이 모델은 從屬變數(한 企業體가 生産하는 商品)의 量의 값은 두개의 獨立變數(需要와 供給)의 값의 함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總體分析에 관심을 돌려 케인즈派의 모델을 보면, 여기서는 獨立變數를……消費性向, 資本의 限界効率表와 利率率을 삼고 있다. 消費性向은 하나의 수요법주이다. 資本의 限界効率は 投資에서 돌아 올 利潤에 대한 期待이다. 利率率은 貨幣의 供給과 流動性을 위한 需要이다. 이러한 獨立變數의 값을 조작성으로서 케인즈는 한 社會의 資源의 非雇傭과 國民生産의 감소(從屬變數)를 가져 오는 예측모델을 세웠다. 이것이 케인즈의 均衡모델의 本質이다.」

(5) R. Firth, *Elements of Social Organization*, London, Watts, 1951.

B. Malinowski,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London, Routledge, 1922.

M. Mauss, *The Gift*,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4.

그런데 N.J. Smelser는 相異한 社會文化的 文脈들에서 經濟制度나 經濟行爲를 비교하는 立場에서 본다면 人類學者의 연구방법은 극단적인 相對主義에 빠지기 쉽다고 비판하고 어떤 집단이든 거기서 “經濟的”이라고 하면 그대로 취급하게 되어서 “經濟的인 것”의 보편적 개념을 설

德的 그리고 심지어 審美的 活動과 價值的 文脈속에서만 충분히 理解될 수 있다. 실로 人類學者에게는 經濟的 關係는 모든 社會的 關係의 體系중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sup>(6)</sup>.

社會學에 있어서도 經濟的 關係는 人類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社會的 關係의 體系중의 一部라고 본다. 그러면 우선 社會學의 基本的 變數들은 무엇인가? 실로 社會學의 主題를 特定化시키는 일은 經濟學의 경우처럼 그렇게 명료하고 산뜻하지 못하다. 社會學者들 간에는 社會學의 基本的인 問題와 概念에 대하여 널리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社會學의 特性을 근사하게 분석적으로만 말해 본다면, 社會學은 社會的 行爲의 體系들과 그 體系들간의 關係를 연구하는 것이다. A. Inkeles에 의하면, 社會學的 分析은 社會的 行爲의 體系들과 그들의 關係를 세가지 單位 즉 社會的 關係(Social relationships), 制度(Institutions), 그리고 社會(Society)로 잡아 나갈수 있다는 것이다<sup>(7)</sup>. Inkeles도 社會와 制度를 보다 단순한 “社會的 關係”의 복잡한 體系로 보듯이, Smelser는 社會學의 從屬變數를 규명할 具體的인 單位를 特定化시켜야 할 때 이 具體的 單位를 社會構造(Social structure)의 單位와 社會構造에 志向한 人間行爲의 變量으로 잡고 있다. 社會構造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간의 再起的이며 秩序있는 相互作用을 말하는 概念이다<sup>(8)</sup>. 그리고 社會構造의 基本單位는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간의 相互作用의 側面인 役割과 役割들이 모여 일정하게 構造化된 社會組織體(Social organization)이

정할수 없으므로 比較研究의 能力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M. Mauss는 상이한 社會文化的 文脈에서 여러가지의 經濟活動과 그 活動의 意味가 있다고 인식되는 것은 모두 “經濟的”인 것으로 표현하는 立場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現象論의 主觀主義를 피하면서 보다 一般的인 概念(예컨대 모든 社會가 自然資源과 人的 資源 및 技能의 稀少性에 당면하여 있고 이 問題를 어떤 制度的 方的으로 해결코자 한다는 事實에 기초를 둔 概念)에 의하여 經濟行爲를 상이한 社會文化的 文脈에서 經驗的으로 어떻게 確認되는 가를 밝혀야 한다. “經濟的인 것”을 經驗的으로 確認하는 가장 편리하고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A. Marshall 같이 貨幣를 指標로 삼는 것인데, N.J. Smelser는 貨幣는 經驗的 正確性이라는 利點이 있지만 經濟行爲를 보편적 기초에서 보는 경우에는 극히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화폐로서 표현되지 않으면서도 經濟的 意味가 있는 行爲는 많으며, 그리고 하나의 經濟成長을 歷史的으로 비교한다든지 富를 國際的으로 비교할 때는 화폐를 지표로 사용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이다. Smelser는 經濟的 活動의 比較研究는 가장 보편적 개념과 구체적인 測定간에 文化的 價値와 意味가 개입되는 것을 허용하여, 우선 상이한 社會의 價値體系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다음에 각 社會에 상이한 作業概念을 사용해서 어떤 범주의 活動이 이러한 價値와 관련해서 經濟的인 것인가를 확인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方法을 시사하고 있다. 참조. N.J. Smelser, *Essays in Sociological Explanation*, Prentice-Hall, Inc., 1968, Chapter 3. The Methodology of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Activity, pp.62~75.

(6) R. Firth and B.S. Yamey(eds.), *Capital, Saving and Credit in Peasant Societies*, George Allen and Unwin, 1964, p.16.

(7) Alex Inkeles, *What is Sociology?* Prentice-Hall, Inc., 1964, pp.14~16.

(8) N.J. Smelser(1963), op. cit., p.27.

A. Inkeles가 사용하고 있는 社會的 關係의 體系는 Smelser의 社會構造와 같은 意味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社會構造의 특성은 相互作用이 選擇의이며 秩序의이며 여러 社會的 統制에 의하여 規制되고 있다는 것이다<sup>(9)</sup>. 社會構造를 分析하는데는 세가지 基本 概念이 중요하다. 첫째, 價値(Value)는 特定한 社會構造와 社會構造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行爲種類的의 存在와 重要性을 正當化시키는 信念을 두고 말한다. 둘째, 規範(Norm)은 社會構造내에서의 個人들간의 相互作用을 규제하는 行爲基準을 말한다. 셋째 制裁(Sanction)는 報償과 박탈을 포함해서 社會構造내의 成員들의 行爲를 統制하기 위하여 여러 社會的 資源을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이 統制의 側面에서는 役割의 設定, 役割을 맡고 수행하도록 個人들을 誘引하는 것과 期待된 役割遂行으로 부터의 逸脫에 대한 統制가 있다. 社會的 統制로서의 制裁는 그 중요한 形態가 다음과 같다. (1) 經濟的 報償과 剝奪으로서 이것은 社會의 役割配分, 個人들의 役割補任, 役割에 경주하는 努力의 程度를 決定하는데 動員되는 賃金 俸給 利潤等 經濟的 報償體系에 관한 것이다. (2) 政治的 手段으로서 物理的 強壓, 強壓의 위협, 威力, 協商, 政治的 權力的 약속 등 政治的 報償體系이다. (3) 統合의 手段으로서 이것은 特殊主義的 또는 歸屬的 集團에의 所屬資格에 관한 것으로, 어떤 集團所屬資格은 어떤 成員이 담당할 役割에 관한 期待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役割담당후 그 사람을 統制하는데도 중요하다. (4) 價値信奉으로써, 基本的 原理를 信奉한다는 것은 個人들을 役割을 담당하게 하고 役割담당후에는 어떤 方式으로 行動하도록 유인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社會構造의 要素들 즉 役割, 集合體, 價値, 規範, 制裁를 통일하여 하나의 複合體로 보는 概念이 制度化(Institution)이다.<sup>(10)</sup> 예컨대, 資本主義企業의 制度化라고 할때는 役割과 集合體(즉 實業家와 企業體), 價値(自由企業), 規範(契約과 財産의 法, 非公式的인 企業行爲規範)과 制裁(利潤等)의 다소 지속적인 類型을 말한다. 따라서 社會學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은 社會構造의 要素들로 類型화된 社會構造, 이 構造에 대한 同調와 逸脫 및 그 結果등이다.

위에서 제시한 構造의 概念은 실로 社會的 適應, 不適應 및 變動에 대한 假說이나 說明을 제시하지 않고 社會的 關係를 靜態의으로 설명케 할 뿐이다. 따라서 社會的 關係의 變動問題에 관해서는 몇개의 다른 變數 즉 獨立變數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社

(9) 社會組織體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目的志向的 集合體(예컨대, 企業體, 病院)와 非形式的 組織體(幫, 이웃, 친구집단), 그리고 擴散的 集合體(人種集團)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그리고 社會的 共同體(Social community)는 規範的 秩序와 集合的으로 組織된 人口라는 두가지 요소의 相關性을 지칭하고 이 組織된 人口의 側面에서 보면 集合體(Collectivity)는 內的 社會構造의 범주이며, 役割은 相互作用의 境界의 構造의 범주이다.(참조. T. Parsons, *Societies: Evolutionary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Prentice-Hall, Inc., 1966, p. 18.

(10) N.J. Smelser(1963), op. cit., pp. 27~28 및 p. 36.

會學에 있어서 獨立變數를 설정하는 것은 社會學의 從屬變數에 관한 意見의 不一致보다도 더욱 애매하지만 Smelser가 제시한 重要的 獨立變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즉, 緊張(Strain), 緊張에 대한 反作用(Reactions to strain) 및 緊張에 대한 反作用을 統制하려는 企圖(Attempts to control reactions to strain)등이다. 첫째, 緊張; 우리는 社會體系가 完全히 統合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不完全統合에 의한 緊張은 體系의 밖(例, 국제긴장)에서나 體系의 안에서(例, 體系의 모순) 그 原因이 發生할 수 있다. 緊張은 統合문제를 제기하고 따라서 適應 즉 새로운 形態의 統合이나 좌절을 갖게 한다. 社會體系內에서 발생하는 緊張의 形態는 役割期待의 曖昧性(즉 期待에 대한 情報가 不分明하든지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 役割들간의 葛藤(役割期待가 兩立할 수 없는 形態의 行爲를 요하는 경우), 期待와 實際 社會的 狀況간의 不一致, 體系內의 價値葛藤등이다.

둘째, 緊張에 대한 反作用; 緊張狀況에 대하여 처음으로 나타나는 反作用은 하나의 社會體系로 보면 대체로 逸脫이며 不完全하게 統合된 소란스러운 反作用이다(예컨대, 犯罪, 알콜중독, 自殺, 정신분열, 폭동, 社會運動이다).

셋째, 緊張에 대한 反作用을 統制하는 企圖; 어떤 緊張과 逸脫行爲가 위협을 제기하면 가능한 한 파괴적 結果를 줄이기 위하여 社會的 水準에서 그 긴장을 두가지 方向에서 統制할 수 있다. (1) 緊張을 극소화시키는 方向으로 狀況을 構造化시키는 것으로서, 갈등하는 期待들의 重要性에 의거하여 優先順位를 制度化하거나, 한꺼번에 하면 모순될 要求들을 차례로 해결하도록 活動을 計劃하거나 또는 타당치 않는 行爲를 타당하게 構造化된 役割一期待를 공개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限 허용해 주거나, 어떤 逸脫行爲를 “例外”로 취급하여 공치사만 하는 한편으로 狀況에 支配的인 規範을 再確認하는 것 등이다. (2) 緊張에 대한 反作用을 발생하는 데로 統制하는 것으로서, 警察, 法院등과 같은 社會統制의 여러 機關이 制裁를 適用하는 것이다.

이상 언급된 것이 社會構造에 志向된 行爲의 지속과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獨立變數들이다. 그런데 從屬變數와 獨立變數간의 關係가 되는 설명모델은 충분하고 완전 한것은 결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近來에 社會學分野에서는 社會에 대한 두가지 모델이 假定되고 있다. 즉 有機體모델로서 構造機能主義(Structural-functionalism)와 葛藤모델이다.<sup>(12)</sup> 構造

(11) Ibid. pp.29~30.

(12) A. Inkeles는 人類學者 Malinowski와 Radcliffe-Brown 등이 발전시키고 美國社會學界에 T. Parsons派에 의하여 하나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 특히 T. Parsons가 발전시킨 概念들은 構造機能主義의 특수한 경우로서 均衡모델이라고 하고 있으며, 葛藤論은 構造機能論이 가정하는 것 처럼 社會가 자체의 유지를 위해 社會의 여러 要素들이 調和로운 均衡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보며 따라서 構造機能論은 變動現象을 적절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L. Coser, R. Dahrendorf, J. Galtung 등이 발전시킨 모델이라는 것이다. Inkeles는 이 두가지 모델외에

機能論에서는 社會모델을 다음과 같이 假定한다. (1) 모든 社會는 諸 要素의 비교적 영속적 형태이다. (2) 모든 社會는 諸 要素의 잘 統合된 형태이다. (3) 한 社會의 모든 要素는 그 社會의 機能化에 기여한다. (4) 모든 社會는 社會의 構成員들의 合意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葛藤論은 다음같이 假定한다. (1) 모든 社會는 순간마다 變動을 當面하고 있다. 즉 社會變動은 어디에나 있다. (2) 모든 社會는 항상 社會的 葛藤을 經驗하고 있다. 社會的 葛藤은 어디든지 있다. (3) 社會의 모든 要素는 그 社會의 變動에 기여한다. (4) 모든 社會는 그 社會成員의 一部가 다른 一部에 의하여 강제당하고 있는데서 이루어 지고 있다<sup>(13)</sup>.

이제 분명한 것은 經濟的 行爲나 經濟的 關係는 社會學이 취급하는 社會的 關係 또는 社會構造에 내포되는 것으로서 소위 社會學의 分析에서는 經濟的 分析과는 중첩되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非經濟的 要素와 그 要素와의 關係에 더욱 더 큰 關心을 갖는 것이다.

## II. 經 濟 體 系

### 1. 社會體系

經濟的 行爲에 대하여 社會學的으로 接近한다는 것은 社會學의 一般的 準據들과 變數 및 說明모델을 稀少財貨와 用役의 生産 分配 交換 및 消費에 관련된 活動들의 複合體에 適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4)</sup>. 따라서 分析的 目的을 위해서는 經濟를 추상적 수준에서 하나의 社會的 關係들로 구성된 體系라고 假定하는 것이 편리하다. 물론 體系論은 T. Parsons 를 中心으로 하는 構造機能主義자들이 社會構造를 어떤 基本的인 指向的 傾向의 側面에서 分類한 分析的 概念이다<sup>(15)</sup>. 이 社會體系的 概念은 앞서 언급한 社會學의 說明모델중의

도 The evolutionary model, The physical model, Statistical and mathematical models 를 설명하고 있다.(참조, Inkeles, op. cit., pp.30~34). 그리고 構造機能論이 靜態的 分析에 適合하고 變動問題의 分析에는 適合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하여 F. Cancian 은 機能的 分析도 충분히 變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참조, Francesca Cancian, "Functional Analysis of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XV(1960), No.6, pp.818~826, reprinted in Amitai Etzioni and Eva Etzioni(ed.), *Social Change*,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64, pp. 112~124).

(13) Ralf Dahrendorf, "Toward a Theory of Social Conflict,"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XI(1958), No. 2, reprinted in A. Etzioni and E. Etzioni (ed.), *Ibid.*, p. 103.

(14) 이러한 方向의 研究活動을 근래에 經濟社會學이나 産業社會學의 主題로 삼는다.

(15) 참조. T. Parsons, *The Social System*, The Free Press, 1951 및 *Societies: Evolutionary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Prentice-Hall Inc., 1966. Chapter 2, The Concept of society: the components and their interrelations. 여기서 行爲體系의 一般論으로 부터 始作하고 있다. 行爲體系(System of action)는 社會體系(Social system)를 中心으로 해서 이 社會體系的 內的 行爲環境

하나인 構造機能主義(또는 均衡모델)가 몇가지 假定한 것과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構造單位의 變動은 다른 單位部分에 適應(또는 다른 形態의 變動)의 壓力을 주는 方式으로 構造單位들이 類型化하는 것을 두고 말한다. 그러므로 社會體系의 概念은 社會構造의 概念보다도 上位水準의 抽象概念이다<sup>(16)</sup>.

그러면 社會體系는 어떻게 分類되는가? 社會體系의 分類는 우선 社會構造의 形態를 分類하는데 따른다. T. Parsons 에 의하면 社會構造의 分類는 하나의 社會的 共同體(Societal community) 또는 全體社會水準에서는 그 社會가 계속 機能作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基本的인 機能의 問題를 해결해야한다는 立場에서 그 基本的인 機能을 基準으로 하여 네가지로 分類한다<sup>(17)</sup>. 네가지 機能은 다음과 같다. (A) 稀少財貨와 用役을 生産하고 配置하며 消費하는 樣式(Adaptation, 또는 經濟的 機能). 이 機能을 전달하는 構造單位는 企業體 銀行등이다. (G) 社會의 集合의 行爲를 조정하고 統制하는 政治的 機能(Goal attainment 또는 Goal gratification). (I) 社會內的 單位들 간의 相互作用을 支配하는 規範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遂行하는 樣式인 統合的 機能(Integration). (L) 社會의 文化的 價値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樣式인 類型維持的 機能(Pattern maintenance 또는 Latent-pattern maintenance and tension management). 그런데 社會構造의 分類는 위와같은 네가지 機能을 각 構造單位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지의 社會構造形態중에 分類된다. 그렇다고 한 構造單位 예컨대 家族은 類型維持的 機能을 으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家族 構造를 全體社會 水準에서는 類型維持的 構造로 보는 것이며, 家族 자체는 經濟的 政治的 統合的 機能을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體系는 社會(Societal community)를 社會構造들의 統合的 體系로 보면 類型維持機能을 중심으로 해서 構造들이 制度化된 文化的 類型의 維持로 體系화된 것이 文化的 體系이며, 政治的 機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政

體系로서 Cultural system, Personality system, Behavioral Organism 그리고 行爲의 環境體系로 "Ultimate reality"와 Physical-Organic environment 로 나누고 있다(T. Parsons, 1966. ibid. p. 28, table 1).

(16) W.E. Moore 는 社會體系를 均衡으로 보지 않고 緊張管理體系(Tension-management system)로 概念化하여, 社會가 機能적으로 相互依存의 單位로 구성되고 있는 構造機能論은 統合均衡에 중점을 두고있는 것이므로 하나의 秩序整然하고 條理있는 分析과 주어진 變動의 結果를 說明하 는데 탁월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을 認定하지만, 단지 社會體系는 緊張을 本來的으로 갖고 있으며 變動은 緊張의 創出 또는 감소의 兩面을 가져 온다고 보아, 社會體系속의 要素들이 지 속적으로 나타내는 變動過程을 중시하여, 變動이 體系속의 要素들의 새로운 均衡을 가져 온다 는 靜態的인 均衡論을 보완하고 있다 (W.E. Moore, *Social Change*, Prentice-Hall Inc., 1963, pp. 7~11). 이러한 立場에 따르면 社會體系의 概念으로 經濟構造를 分析하는데는 일단 유용 하게 適用시킬 수 있고, 經濟構造의 變動分析에는 葛藤論의 내지 緊張管理體系의 概念을 導入 할 수 있을 것이다.

(17) 機能과 社會體系에 관한 부분은 T.Parsons(1951 및 1966)에 의존하고 있다.



治體系이며 經濟的 機能을 중심으로 한 것이 經濟體系이다. 따라서 社會을 分析하는데는 社會을 하나의 社會體系로 보면 그 下位體系(Social sub-system)로서 統合體系, 文化體系, 經濟體系, 政治體系로 分類해서 볼 수 있다<sup>(18)</sup>. 社會全體의 水準에서 機能의 指向的 傾向을 근거로 하여 下位體系를 구성하는 原理는 社會의 全體水準에서만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構造의 下位單位에도 그대로 適用하여 그 單位를 社會體系로 보면 그 單位가 갖는 네가지 基本的 機能에 따라 下位體系를 나누어 分析할 수 있다. 分析目的을 위해서는 社會的 下位體系를 폐쇄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다른 下位體系와의 相互作用을 취급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構造單位를 分析하는데도 同一하게 接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는 두가지 次元으로 體系論이 適用될 수 있다. 하나는 經濟를 社會의 適應的 機能을 주로 하는 하나의 下位體系로 즉 稀少財貨와 用役의 生産 分配 및 消費에 참여하는 單位들간의 相互關係로 구성되는 下位體系로 취급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經濟를 社會體系로 보고 그 體系內의 機能的 基準으로 下位體系로 分類하여 취급할 수 있다.

經濟를 한 社會의 適應的 機能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下位體系로 볼때, 經濟의 目的은 무수히 사용될 수 있는 手段으로서의 普遍化된 便益(Facilities)을 生産하는 것이며, 이 生産의 特性은 이러한 便益의 量뿐만아니라 그 便益이 多樣하게 使用될 수 있는 適應性 즉 普遍性(generalizability)에 있다<sup>(19)</sup>.

(18) 社會의 下位體系

A	Economy	Polity	G
L	Latent pattern-maintenance and tension-managemt sub-system (cultural-motivational system)	Integrative sub-system	I

(19)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經濟學者들이 동의 하듯이 經濟活動의 目的이 生産이라면, 商品과 用役의 生産은 단지 物理的 측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物理的 單位는 意味를 갖고 質的으로 다른 物理的 單位와 量的 比較가 可能해야 하는데 이것을 準據해 주는 것은 消費者의 欲望이다. 즉 財貨나 用役은 그것의 欲求充足의 手段으로 되는 한 經濟的 價値나 意味를 갖으며, 이러한 意味에서 効用을 갖는 것이며 効用 (Utility)의 증대는 한 社會의 富의 増大를 가져 온다. 따라서 生産의 概念이 下位體系로서의 經濟의 目的志向을 규정한다. 財貨와 用役의 欲望을 充足시켜 주는 한, 生産은 効用 또는 財貨와 用役에 關한 것이다. 富는 어느 時期의 이러한 財貨와 用役의 總體의 經濟的 價値이며, 所得은 時間單位當 이러한 價値에 대한 支配이다. 社會全體의 水準에서 본다면 欲求充足의 意味는 社會의 適應的 機能(소극적으로는 自然環境의 支配를 최소한도로 받는 것이나, 적극적으로는 社會에서 가치있게 평가된 어떤 目的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資源을 최대한 갖는 것)을 다하는데 있는 것이지만, 위의 概念들이 갖는 機能의 意味는 全體社會의 制度化된 價値體系에서 평가된다. 그러므로 効用이나 欲求充足은 “個人”에 關聯되어서가 아니라 社會에 關聯되어 규정되는 것이다. 効用은 物理的, 社會的 또는 文化的 對象이 社會의 適應的 問題를 해결하는 便益으로서 갖는 意味에 따른 經濟的 價値이다. 富는 어떤 時期의 어떤 社會에 대한 이러한 價値의 總體이며, 所得은 어느 기간 동안 이러한 價値의 生産 또는 受領의 率이다. (T. Parsons and N.J. Smelser, *Economy and Society*, The Free Press, 1956, pp. 20~23).

政體(Polity)의 目的은 社會의 어떤 體系目的의 達成에 필요한 先決條件을 動員하는데 있다. 이 不可缺한 條件중에 하나가 富이다. 달리 말하면 政體의 目的은 社會의 體系目的 즉 集合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社會의 能力(Capacity)을 극대화시키는데 있으며, 이 能力이 富와 區別되는 權力(Power)이며, 富는 權力의 한 成分이다. 왜냐하면 富를 集合의 目的을 위해서 使用한다는 것은 政府외의 다른 體系에 富를 처분하는 것이 희생되기 때문이다.

統合의 下位體系는 社會가 內的 葛藤없이 機能하기 위해서는 文化的 價値類型을 個人的 動機構造에 연관시킨다. 이것은 社會의 주요한 構造의 特性을 규정하는 價値類型을 制度化시키는데 過程이다. 統合機制는 社會統制機制이다. 統合體系는 富와 權力과 마찬가지로 行爲의 統制能力을 갖는다. 이것은 連帶性(Solidarity)이다. 따라서 富는 便益이나 어떤 目的의 報償對象으로 또는 어느 水準의 利潤으로서 財貨와 用役을 支配하는 能力이며, 權力은 社會의 特定的이며 다소 직접적인 集合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富나 忠誠心 또는 政治的 責任등의 資源을 動員하는 一般화된 能力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連帶性은 體系單位의 行爲를 體系의 統合의 要求에 一致시키며 逸脫的 行爲을 제어하며 調和스러운 協助의 條件을 촉진시키는 社會機關의 一般화된 能力이다.

類型維持—緊張管理下位體系는 價値志向의 類型에 초점을 두고 있는 制度化된 文化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類型은 모든 社會의 行爲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떤 體系에 있어서든지 이 類型은 그 體系에 當面하고 있는 直接的인 目的要求와 절실한 適應的 統合의 問題와는 거의 無關하게 상당히 독립되어 있다. 그렇다고 類型維持가 自動적으로 어떤 機制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社會化過程(Socialization)을 통해서 制度化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體系單位가 機能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單位에 參與하는 個人的 動機에 달려 있다. 類型維持體系的 緊張管理的 側面은 文化的 價値에 同調하도록 適合한 動機를 개인이 유지하는 것이며, 管理되는 緊張은 個人的 動機로서 個人이 制度的으로 규정된 役割에서 行爲期待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緊張이 統制 또는 管理되지 않는다면 緊張이 體系를 分解시키고 社會의 機能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한편 類型維持體系에서도 전체 社會에 一般화된 하나의 “產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社會의 價値에 同調하는 하나의 報償으로서의 “尊敬(Respect)”이다. 그 尊敬의 程度를 다른 사람들과 比較했을 때 威光(Prestige)이라고 한다. 이 威光은 말하자면 制度化된 價値의 體系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行動하게 하는 能力이다<sup>(20)</sup>. 그리고 下位體系들간의 關係는 한 體系의 產出

(20) Ibid., pp. 47~51.

(Output)은 다른 體系의 投入(Input)으로 된다는 產出—投入關係에 있다<sup>(21)</sup>.

## 2. 經濟體系

經濟를 하나의 社會體系로 볼때도, 네가지 機能의 次元에 따라서 그 下位體系를 分析할 수 있다<sup>(22)</sup>. (1) 經濟가 全體社會水準에서 다른 社會下位體系와 相應하여 類型維持가 되자면 그 社會의 制度化된 價值類型이 經濟에 表示되어야 하는바, 그것이 곧 經濟의 制度

한 體系로서의 經濟의 機能分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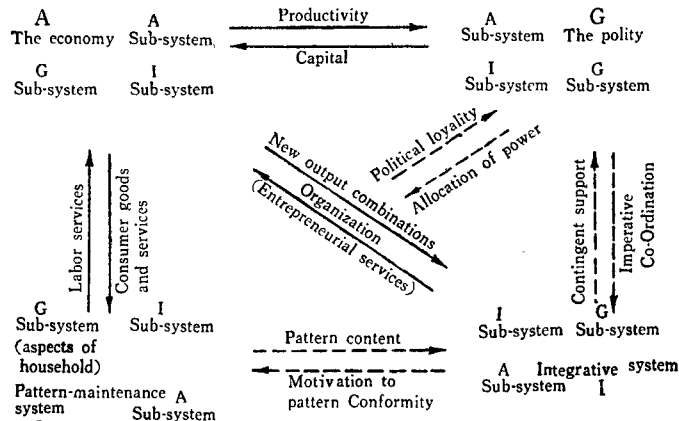
A	資本化和 投資 下位體系 (Capitalization and investment sub-system)	生産下位體系—分配와 販賣포함 (Production sub-system—including distribution and sales)	G
L	經濟의 信奉: 物質的 文化的 動機的 資源 (Economic commitments: physical, cultural and motivational resources)	組織下位體系: 企業家的 機能 (Organizational sub-system: entrepreneurial function)	I

的 構造인 것이다<sup>(23)</sup>. 이와 마찬가지로 經濟도 자체의 類型維持의 必要性을 갖고있다. 經濟에 있어서 經濟의 價值類型을 制度化한다는 것은 生産過程에서 세가지 要素를 상당히 安定된 樣態로 統制한다는 것이다. 그 세가지 要素는 첫째 文化的 社會的 水準에서 본 技術의 주어진 狀態와 非經濟的 側面의 體系組織, 둘째 物質的 水準에서 資源의 供給狀態,

各體系의 能力(Capacity)으로서 표시된 富 權力 連帶性 및 威光은 構造機能論의 階層論에 있어서 役割에 대하여 機能의 重要性에 의하여 주어지는 報償의 要素로 간주된다. 이 要素에 의한 報償體系가 곧 階層構造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産過程과 消費過程에 있어서의 個人的 地位는 곧 이 네가지 側面의 報償되는 位置로 간주된다.

(21) 經濟體系와 다른 體系와의 關係는 후에 언급하겠지만 體系들간의 關係圖式은 다음과 같다. Ibid., p. 68. Figure 4.

Boundary interchanges between the primary sub-system of a society.



(22) Ibid., pp. 39~44.

(23) 經濟의 制度的 構造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것은 契約, 勞動市場(職業과 雇傭契約), 財產 所有와 投資契約, 市場등이다.

셋째 動機的 水準에서 生産機能에의 信奉狀態이다. 이 세가지는 實際的인 制裁(즉 價格)의 수준과 樣態의 變動과는 거의 無關하며, 이것은 經濟에 있어서 하나의 與件으로 되는 데 이것을 한마디로 經濟的 信奉(Economic commitment: L機能)이다. 社會學的으로 보면 이 信奉은 經濟的 機能의 遂行을 위한 그 社會의 價值體系의 內容을 直接的으로 反映한 것이다. 즉 그것은 다른 社會體系의 目的에 比較하여 經濟的 生産의 相對的 重要性을 구체화한 것이며, 한편으로 社會의 資源의 어느만큼을 經濟的 生産에 떼어 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經濟的 信奉은 완전히 正常的인 價格機制를 통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經濟的 信奉體系는 자체 네가지 機能次元에 의하여 下位體系를 갖는다<sup>(24)</sup>. 經濟的 信奉體系에 있어서 첫째 類型維持的 機能은 일반적으로 經濟的 行爲를 하나의 行爲形態로 적극적으로 評價하는데 있다. 따라서 經濟的 行爲에 관련된 가장 基礎的이고 一般的인 價值體系이다(A<sub>L1</sub>). 둘째, 生産性에의 信奉은, 經濟體系의 基本的인 動機的 價值的 構造의 目的이 資本利用을 위해 資源이나 技能을 제공하는 意思에 달려 있다는데 있다(A<sub>L2</sub>). 셋째, 長期的 生産性에의 信奉은 長期的 需要的 變動, 市場構造의 變動, 資源調達の 變動에 適應하는 機能의 側面이다(A<sub>L3</sub>). 넷째, 計劃에 필요한 動機와 技能을 供給하는데의 信奉이 統合的 機能으로 나타난다(A<sub>L4</sub>).

(2) 經濟의 目的達成機能의 必要性은 消費를 위한 財貨와 用役을 제공하는데 있다(G機能 즉 生産體系). 財貨와 用役에 관련된 欲望이 質的 量的으로 安定되어 있고 生産의 條件이 類型維持機能의 세가지 條件에 의하여 완전히 決定된다면 그랜 生産過程이 완전히 틀에 박힌 節次로 될 것이다. 그러나 需要狀態와 生産條件은 끊임없이 變하며 따라서 制度化된 信奉이 허용하는 한계내에서 兩者간의 適應이 있게 된다. 信奉의 條件에 相應해서 따로히 消費者가 어떤 財貨와 用役의 特定한 量을 具體的으로 需要하는데 따르기 위하여 經濟의 過程(즉 生産 分配 販賣)이 分化되어야 하며 이것이 協의로 生産下位體系이다. 이 體系內에서 生産이 이행된다. 여기에서 變動하는 需要狀態와 變動하는 生産過程이 상호 適應하는 것이며, 生産過程은 일부 需要條件에 의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生産 자체의 條件에 근거한 變動에도 의존한다.

(24) 經濟的 信奉(A<sub>L</sub>)

長期的 生産性에의 信奉 (Commitment to long-term productivity)	a	g 生産性에의 信奉 (Commitment to productivity)
經濟的 價值(經濟的 合理性) (Economic values: economic rationality)	l	i 資源의 計劃的 配分에의 信奉 (Commitment to planned allocation of resources)

T. Parsons and Smelser, op. cit., p. 204.

生産體系는 네가지 下位機能體系로 나누어 진다<sup>(25)</sup>. 첫째는 生産體系 전체의 作業과 相互作用에 內在하는 過程을 維持하고 改善하는 一般的 機能은 生産目的의 實現化에 기초가 되는 計劃된 義務를 保持한 部分이다(A<sub>G1</sub>). 生産組織體에서는 이 機能을 技術的 役割(技術者, 技能工 등)이 담당한다. 둘째, 生産 마아케팅 販賣는 보통 政策決定의 手段을 통해서 生産目的 자체를 다룬다. 이 政策決定은 技術的 生産부분의 要素들의 質과 量 및 組織을 변경시킨다. 이 機能은 보통 最高經營者가 담당한다(A<sub>Gg</sub>). 셋째, 生産目的을 달성하는데는 便益의 調達이라는 條件이 必要하며, 이것은 보통 流動財産의 형태로 生産過程의 變動을 대치하고 부채와 같은 危機에 대치한다(A<sub>Ga</sub>). 이것은 財政的 機能이다. 넷째, 生産調整은 生産-販賣決定, 財政의 種類와 水準, 工場의 組織, 人間關係를 규제하여 生産體系 전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A<sub>G1</sub>).

(3) 經濟에는 直接的 消費와 계속적인 生産的 利用에 資源의 配分이 있다. 이 配分이 經濟에서 自動的으로 安定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生産目的을 위한 投資配分에 특징적인 關係體系가 발생한다. 이것은 資本調達의 必要性을 내포하고 있다(A 機能, 즉 資本化-投資 下位體系). 그런데 經濟의 目的은 社會 또는 社會의 下位體系를 위한 效用의 生産이며, 富의 生産은 社會의 目的의 追求를 위한 便益을 表現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生産者의 富의 生産은 經濟의 生産目的의 追求를 위한 便益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投資-資本化下位體系는 資本화된 資源의 創出을 統制하는 役割體系이며, 이 統制는 投資-資本化의 機能이 成果-制裁關係(Performance-sanction)의 手段에 依한다는 것이다. 이 投資-資本化 下位體系도 네가지의 機能의 問題를 갖고 있다<sup>(26)</sup>. 첫째, 投資-信用機制(A<sub>A1</sub>)가 資本交換과 投資를 決定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信用體系를 制度的으로 信奉한다

(25) 生産下位體系(A<sub>G</sub>)

便益의 調達 (Procurement of facilities)	a	g	生産, 分配와 販賣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s)
技術的 生産 [Technical production (flow of production line)]	l	i	生産의 調整 (Production co-ordination)

Ibid., p. 199.

(26) 投資-資本化 下位體系(A<sub>A</sub>)

流動性的 保障 (Guarantee of liquidity)	a	g	生産能力의 生産 (Production of productive capacity)
信用과 投資의 機制 [Credit and investment mechanisms (flow of credit and capital)]	l	i	企業의 保障 (Guarantee of enterprise)

Ibid., p. 200.

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生産者의 富의 創出 過程에 하나의 與件이다. 둘째, 投資—資本化體系의 目的을 生産者의 富 자체의 創出을 統制하는데 있다(A<sub>A<sub>g</sub></sub>). 셋째, 이 目的이 주어졌을 때 生産能力의 創出을 단순한 資本의 축적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生産의 要求에 一致하도록 生産能力이 選擇的으로 축적되거나 配分되어야 한다. 이 配分은 流動성이 보장되는 機制를 갖추어야 하고 따라서 資金을 企業에 配分하고 다시 받아 새로운 投資機會에 돌릴수 있게 하여 社會의 生産要求에 계속해서 適應할 수 있다(A<sub>Aa</sub>). 넷째, 이와 같이 短期的으로 投資가 可能하다고 하더라도 長期的 安定성을 갖기 위해서 統合機能으로서 企業의 보장이 필요하다. (A<sub>Ai</sub>)

(4) 經濟의 統合分野는 원래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機會가 發生하며 狀況의 變動이 內的 變化를 가져온다. 따라서 生産要素들을 組織하고 適應해야한다. 企業家は 이러한 機能의 担當자이다 (I機能, 組織下位體系). 企業家の 活動은 制度的으로는 거의 分離되지 않지만 機能적으로 分離된다. 企業家の 機能의 下位體系는 다음과 같다<sup>(27)</sup>. 첫째, 職業的 理由로 인한 居住移動을 할려는 勞動者의 制度化된 動機라든지 어느 한계의 技術的 失業의 受容등은 長期的인 經濟的 適應에 價值的 前提가 되는 經濟的 合理性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生産要素들을 항상 새롭게 組合한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生産要素들의 制度化된 移動性 伸縮性과 代置性을 필요로 한다(A<sub>n</sub>). 둘째, 企業家の 機能의 目的은 生産要素들을 새롭게 組合하여 提供하거나 革新의 실제적 過程을 표시한다(A<sub>lg</sub>). 셋째, 革新을 꾀하는 企業家は 資源들의 有用性差異나 技術狀態등과 같은 어떤 環境의 制約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企業家は 經濟적으로 適應해야 하는 狀況이기도 하다(A<sub>la</sub>). 넷째, 企業家の 決定은 革新에의 機會와 誘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決定은 生産要素들의 새로운 組合의 導入을 統制하고 發明과 資源들의 需要를 한정시키며 모험을 위한 資本을 한정시키며 生産要素들의 利用을 再配置하고자 하는 市場需要를 變動시킨다는 意味에서 統合的이다. (A<sub>n</sub>).

이제까지 經濟를 하나의 社會體系로 볼때 네가지 機能次元에 따라서 그 下位體系를 두단계로 잡아 보았다. 이러한 體系의 分析은 어떤 具體的인 體系單位를 分析하는데도 그대로

(27) 企業家 下位體系(A<sub>I</sub>).

革新의 資金調達 (Financing of innovation)	a	g	生産要素들의 새로운 組合 (New combinations of factors of production)
生産要素들의 移動性, 伸縮性과 代置性 [(Mobility, flexibility and substitutability of factors of production (flow of resources))]	l	i	革新의 機會 (Opportunity for innovation)

로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8)</sup>.

### 3. 經濟體系와 他 社會體系

經濟를 社會學的으로 接近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社會學的의 一般的 準據들과 變數 및 說明모형을 稀少財貨와 用役의 生産 分配 및 交換 그리고 消費에 관련된 活動들의 複合體에 適用하는 것이며, 이 社會學的의 接近을 두가지 方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經濟活動 자체가 役割과 集合體로 構造化되는가 하는 問題로서, 이 活動의 構造가 어떤 價値에 의하여 正當化되며 어떤 規範과 制裁로 規制되며 따라서 社會學的의 變數가 어떻게 相互作用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 接近方向에서는 經濟를 하나의 社會體系로 보아 經濟構造를 機能的 次元에 의한 下位體系 별로 그 內的 構造的 側面에 接近하는 것이다. 이것은 體系論的으로는  $A_G, A_L, A_A, A_I$  體系로, 이 體系를 相互作用의 關係와 각 體系의 內的 下位體系를 관찰하는 것이다.

둘째는, 社會學的의 變數가 經濟的 文脈속에서 나타날 때와 非經濟的 文脈속에서 나타날 때와의 關係를 관찰하는 方向이다. 예컨대 家族役割이 職業構造 또는 政治的 統制構造와 어떤 關係로 관련되는가 하는 問題이다. 이때, 經濟構造와 非經濟構造가 서로 統合되는 狀況과 서로 相馳되는 狀況이 포함되며 특히 相馳되는 狀況에서 社會學的의 獨立變數의 作用을 動態的으로 觀察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方向의 接近에는 全體社會水準에서의 下位體系들 중에서 經濟體系와 다른 下位體系와의 關係側面이 重點的인 각도로 된다<sup>(29)</sup>.

(28) 具體的인 經濟構造單位(企業體, 銀行等)를 體系的으로 接近하자면, 우선 經濟單位 자체를 하나의 社會體系로 보아 네가지 機能的 次元에 따라 下位體系의 分析을 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經濟單位가 制度的 水準에서 單位內에서 뿐만아니라 社會의 非經濟的 下位體系에 統合되어야 한다는 점을 考慮해야 한다. 그리고 企業體를 決定시켜 주는 條件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消費者의 目的에 있어서 市場條件, 즉 特定製品에 대한 市場, 消費者의 실제적 慾望構造와 구매력, 市場의 接近度 等等. 둘째, 生産者의 目的에서의 市場條件 즉 原料 勞動供給 資本 等에의 接近度. 셋째, 실제적 生産組織의 複雜한 社會的 必要條件으로, 經濟的 規模를 決定하는 技術的 條件, 勞動組織의 條件과 그 효율적 감독등이다. 生産組織體가 자체 하나의 구체적인 社會體系로 보면, 生産組織體의 目的은 그 組織體가 經濟에서 차지하는 位置에 의하여 規定된다. 또한 生産組織體는 하나의 經濟的 實體일 뿐만 아니라 忠誠과 制度化된 權威를 갖는 하나의 政治體系이기도 하며, 또한 內的 統合의 必要性을 갖고 있으며, 자체의 制度化된 價値와 文化的 傳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體系論的 分析은 分類된 各 下位體系 또는 具體的인 體系單位에도 適用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각 體系가 갖는 機能的 意味는 동일하지만 그 機能的 內容이 同一하다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具體的인 經驗的 構造를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T. Parsons and N.J. Smelser, 1956, op. cit., pp. 43~46).

(29) 經濟的 및 非經濟的 領域에서 社會學的의 變數들의 相互作用을 연구할 때 대상단위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具體的인 經濟單位內에서 社會學的의 變數들의 相互作用을 연구하는 것이며, 둘째는 經濟單位와 그 單位의 社會的 環境간의 關係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두가지 수준이 있다. 하나는 어떤 地域共同體에 있어서 經濟的 利益과 다른 利益(法的 政治的

筆者는 經濟行爲의 社會學的 接近을 둘째번 方向으로 진행코저 하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經濟體系가 다른 社會下位體系와 어떤 關係에 있는 가를 간단히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體系들간의 關係를 우선 한 體系에 대하여 다른 體系들은 主要한 社會的 狀況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經濟에 대하여 政體와 統合體系 및 類型維持體系는 社會的 狀況이 된다. 한편으로 한 體系의 產出은 다른 體系에 投入으로 된다.

T. Parsons 와 N.J. Smelser<sup>(30)</sup>에 의하면, 첫째 經濟와 類型維持體系와의 關係는, 經濟로부터 나오는 消費者의 財貨와 用役이라는 產出은 1次的으로 家族 또는 家口에 대한 投入이 된다는 것과 이와 반대로 家族으로 부터 나오는 勞動用役은 經濟에 대하여 投入이 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때 家族은 社會的 水準에서 보면 類型維持體系에 놓여 있는 것이며, 따라서 家族의 產出이라는 것은 人間動機의 組織化인데 이것은 社會學的 側面에서는 社會의 中心的 價値類型에 準據하여 子女를 社會化시킨다는 것과 成人의 緊張을 管理한다는 것이다. 兩體系간의 產出交換機制는 주로 職業的 役割을 通하는데 말하자면 家族 또는 家口는 職業的 役割側面에서 社會나 經濟에 勞動用役을 生産하는 機能을 制度化시켜 갖고 있으며 한편으로 經濟의 目的은 일차적으로 消費者의 欲求를 滿足시키기 위한 所得을 生産하는 것이다.

둘째, 經濟體系와 政體와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經濟는 生産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便益으로서의 資金(Capital fund)를 必要로 하고 있다. 그런데 資本投入의 한가지 原始的 出處가 政體이다. 그러나 資本의 出處로서의 政體는 분명히 어떤 價格에 의하여 表現되는 需要供給表에 따라 經濟에 備蓄된 流動資本을 끌어드리거나 흘려 내는 저축의 저장소가 아니라, 本質的으로 經濟에 대한 政治的 投入은 오히려 信用의 創出의 概念을 더욱 갖고 있다. 달리 말해서 信用의 創出은, 目的追求에 必要한 便益이 이 便益에의 接近에 대한 狀況的 統制를 부과하는 手段에 의하여 制限된다는 意味에서 權力의 作用을 말한다. 즉 信用創出의 決定은 經濟的 目的의 追求에 適當한 便益을 만드는 決定이며, 따라서 信用을 통한 資本으로서 經濟에 도입되는 普遍화된 購買力이 곧 權力의 한 形態이다. 經濟의 立場에서 보면, 投入이 資金(便益)이며, 社會的 立場에서 보면 投入은 購買力を 가장

---

家族的)간의 關係이며, 다른 하나는 社會의 한 分析體系로서의 經濟와 다른 體系와의 關係를 연구한다. 이 외에 中心的인 經濟的 變數 자체의 특징적인 社會學的 側面을 연구하는데, 예컨대 貨幣를 社會의 여러 制裁중의 한 形態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N.J. Smelser (1963), op. cit., pp. 32~33.

(30) T. Parsons and N.J. Smelser (1956), op. cit., pp. 51~70.



普遍的 水準에서 經濟의 生産性を 增大시키는데 經濟적으로 使用되도록 政治的 統制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 統制手段을 사용해서 經濟的 生産性的 增大에 뿐만아니라 다른 體系 예컨대 學校 敎會등에도 資本으로서의 財政調達을 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社會에서 普遍화된 購買力을 창조하고 다루는 直接的 統制의 所在은 여러가지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나 普遍화한다는 즉 社會진체를 통해서 상징적 經濟機制를 受容한다는 本質的 側面에서 보면 그 所在은 그 社會의 政治的 調整體系에 屬하는 것이다. 그리고 統制한다는 것은 經濟에 資本化를 위해 어떤 特定한 量의 財貨와 用役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特定한 量의 資本財를 支配하는 權力을 經濟에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普遍화된 購買力의 創出에 대한 統制의에 政體의 다른 하나의 產出은 統合的 機能과 연관되어서 社會의 個人들과 集合的 單位에 必要한 動機의 信奉 즉 協調를 動員하는 能力이다. 이것은 便益과 연관되어 人間 行爲를 政體가 統制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극적으로는 社會의 目的達成의 간섭을 막고, 적극적으로는 協同을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權力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權力의 物質的 便益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經濟的 生産성을 統制하는데서 可能하다. 이 生産성은 資金을 사용해서 實現된 資本化의 產物이며, 동시에 權力의 要素的 基礎인 것이다. 生産性이라는 經濟의 產出이 갖는 政治的 意味 要素는, 첫째로 어느 時期에 유용한 財貨의 목록과 生産業體의 규모와 능력에 대한 政治的 關心이며, 둘째는 普遍化의 程度要素로 즉 多樣한 體系目的에 生産能力을 適用할 수 있는 可能性程度이다. 그리고 政體가 生産성에 대한 統制가 작용하는 정도는 狀況에 따른 體系目的에 달려 있다.

셋째, 經濟와 統合體系와의 關係: 經濟學에서 勞動用役, 資本, 土地외에 組織을 生産의 重要하고도 독립적인 要素로 간주하고 있다. 이 組織이 經濟에 있어서 統合的 機能으로 보는 것이다. 組織은 生産要素들의 組合에 관한 것이다. 이 組合은 自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어떤 機關으로 나타나야 하는바 이 機關의 형태는 要素들의 이미 決定된 組合을 制度化시키는 것과 經濟過程의 한 部分으로 된 것이 있는데, 넓게 말해서는 契約制度 같은 것이다. Schumpeter는 組織要素를 企業家的 機能과 연관시켰다. 企業家는 生産要素들의 組合이라는 投入에 일차적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社會學的으로 말하면 “連帶性”이다. 이 連帶性 또는 統合은 소극적인 側面으로는 內的 葛藤과 分解의 傾向이 있어서 經濟에서는 生産要素들의 不均衡으로 부터 발생하는 葛藤으로 나타난다. 적극적 측면으로는 生産要素들의 새로운 組合은 生産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經濟가 社會의 連帶성에 기여하는 側面은, 經濟過程의 產出인 富와 具體

的인 財貨와 用役은 社會에 多様な 상징적 意味를 갖고 있다는 事實에서 규명될 수 있다. 예컨대 富의 分配은 여러가지 統合의 問題를 제기시키는데, 이것은 階級, 利益集團등의 經濟的 利益葛藤에 관한 것이다. 한편으로 財貨와 用役의 적절한 組合은 한 社會의 生活樣式을 상징화시켜 준다. 이것은 生活水準뿐만아니라 生活樣式의 內容을 이루는 要素인 것이다. 따라서 經濟의 產出은 統合體系에 대하여 새로운 生產品의 組合이 갖는 상징적 意味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 III. 生 產

이제까지 社會學과 經濟學의 主要한 變數들과 그 關係, 그리고 經濟行爲를 社會學的으로 接近할 때 經濟的 變數와 非經濟的 變數와의 關係를 社會體系的 分析概念으로 一般論的 水準에서 논급하였다. 이러한 理論의 背景에서 筆者는 韓國社會의 經濟行爲가 갖는 社會文化的 意味를 調查研究하고자 하는 目的에서 몇가지 問題點과 接近의 次元을 설정코져 한다.

經濟行爲중에서 특히 生産과 消費를 問題의 焦點으로 삼는다. 이 生産과 消費를 중심하는 經濟行爲에 대하여 社會的 下位體系的 關係水準에서 政治的 統合的 文化的 要素가 狀況의 內容을 형성시켜 주는 側面에 角度를 두고, 經濟體系에 政治的 統合的 文化的 要素가 介入된 점을 分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經濟의 狀況의 條件을 資本主義的 工業生産이라고 前提한다. 따라서 經濟의 狀況을 靜態的으로만 接近할 수 없다. 利潤追求를 위한 工業生産方式은 韓國社會에서는 그 자체 安定된 構造로 設定해 가는 狀況에 있으므로 아주 새롭다고 할 수 있는 資本主義的 工業生産體系를 그 成長을 촉진하거나 適合하거나 또는 갈등하는 非經濟的 要素들의 傾向의 複合을 考慮해야 하는 것이다. 貨幣經濟와 工業生産體系는 社會의 文化的 內容에 따라 產業社會의 形態를 달리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傳統的 要素들이 資本主義的 工業生産이라는 條件에 관련되고 적용되거나 수정되는 動態的 側面이 중요하다.

이러한 前提를 두고 우선 生産에 대한 問題의 領域과 중요하게 다루어 볼 問題의 本質을 生産要素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土地要素에는 土地, 自然資源의 狀態, 文化的 價値, 技術知識이 포함된다,

1) 土地: 첫째, 土地의 所有關係와 經營關係이다. 特히 農業經營體에 있어서 土地의 所有 및 經營關係가 獨自의 利潤增大에 충분한 條件을 주고 있는가와, 社會에 있어서 土地 所有關係의 階層的 結果는 어떠한가가 문제된다. 둘째는 土地의 機能이 產業發展의 水準

과 社會生活의 基礎의 側面에서 分化되고 變化되는 過程에 있어서, 土地를 利潤追求의 대상 또는 手段으로 되는 經濟的 意味만 갖는 것인가 또는 土地愛着과 함께 傳統的으로 傳來되는 生活의 基盤으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2) 自然資源의 要素에 있어서는, 原料供給源에 따라 利潤의 增大에 差別的 制限을 준다는 側面에서, 原料供給源이 經濟體系내의 政治的 構造의 性格을 규정해 주리라는 것이다.

3) 文化的 價値는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科學的 追求와 관련된 價値와 經濟行爲와 관련된 價値이다<sup>(31)</sup>. 科學的 合理性은 實在에 自然的 秩序가 있다는 것과 이것을 經驗的 觀察에 의하여 檢證한다는 두가지 要素를 갖고 있다. 이것은 단지 事實을 科學的 節次에 의하여 追求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규명된 實在을 示認한다는 義務를 내포하는데서 規範的 性格을 띤 信念體系이기도 한 것이다<sup>(32)</sup>. 經濟行爲에 관련된 價値는 經濟的 合理性이다. 이 經濟的 合理性은 세가지 측면을 갖는다. 取得의 合理性(Acquisitive rationality)은 取得된 財貨를 當장 消費하고 使用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고 저축한다는 관점에서 物質財를 消費하기 보다는 축적한다는 欲求와 物質的 富를 極大化한다는 欲求라는 두가지 價値가 내포되어 있다. 財政的 合理性(Financial rationality)은 축적된 富를 富의 增大에 投資하고 또 增大된 富를 곧장 소비하지 않고 더욱 큰 所得이나 富를 끊임없이 追求하기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다. 이 價値는 宗教的 政治的 또는 文化的 理由로 지지될 수도 있다. 끝으로 勞動의 合理性(Rationality of work)은 物質的 勞動이 本質的으로 善하다는 信念에 기초를 둔 價値이다.

이 經濟的 合理性은 自己利益의 合理的 追求라는 말로도 표현된다. M. Weber는 無限한 營利欲은 어느 時代나 어느 社會에서든지 發見되는 것이지만 經濟的 合理性은 資本主義經濟에서 유일하게 표현된다고 할때는 이 自己利益의 合理的 追求는 社會의 制度的 틀이라는 어떤 條件의 제약을 받는 것이다. T. Parsons도 自己利益의 合理的 追求는 人間行爲의 普遍的 動機가 아니라 一定한 制度에서 規制되어 나타나는 制度的 行動의 表象이라는 것이다<sup>(33)</sup>. 따라서 科學的 追求와 經濟的 合理性에 대한 問題는 이 價値가 社會의 價値體系 水準에서 여러 價値들 중에서 어느 정도로 重要視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31) R.E. Kennedy, J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Par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 (1962~63), 11~20, reprinted in N.J. Smelser (ed), *Readings on Economic Sociology*, Prentice-Hall, Inc., 1965, pp. 16~17.

(32) W.E. Moore,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Social Order*, (Re. ed.) The Macmillan Company, 1951, pp. 428~429.

(33) T. Parsons,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Re. ed.), The Free Press, 1954, Chapter III. The Motivatoin of Economic Activities.

여러 價値를 制度化시키는데 經濟的 價値가 어떤 樣態로 어떤 位置에서 있는가 하는 問題인 것이다.

둘째는, 生産성과 普遍화된 購買力에 대한 統制力이 어느 位置에 있어야 하는가에 關한 이데올로기이다.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 西歐에서 發展되어 온 自由企業이데올로기는 經濟成長을 급속히 촉진시키는데 中央統制的 經濟組織體系보다도 더욱 效果적이어야 된다는 점과 그 社會의 政治經濟와 支配的인 制度的 그리고 社會文化的 價値體系에 關한 信念과 의 適合的 側面에서 相異한 期待가 있게 된다. 自由企業體系는 私的 個人과 企業이 대부분 그들 자신의 創意와 責任으로 共同體의 勞動技能과 經營技能 및 資本을 組合하여 人間의 願하는 財貨와 用役을 生産하게 되는, 하나의 生産 投資 消費의 體系이다. 이 體系의 특징은 누가 무엇을 生産하는가를 決定하는데 있어서 競爭과 價格의 자유로운 作用에 最大한으로 의존하며, 利潤을 다른 어떤 것(강제 또는 威光)보다도 하나의 誘引으로 삼으며 經濟的 機會의 選擇은 最大한으로 自由롭게 한다는데 있지만, 政府의 役割, 生産과 分配手段의 私的 統制, 自由價格體系下的 最大한의 競爭, 利潤動機에의 最大한의 의존, 個人의 自由롭고 原初的 選擇등의 側面에서 自由企業의 經驗을 갖지 않는 國家에서는 傳統的 價値와 制度 및 期待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sup>(34)</sup>. 이 이데올로기의 內容은 自己利益의 合理的 追求와 關聯해서 政府의 役割에 대한 傳統的 規定이나 새로운 期待가 表現된다. 따라서 經濟에 대하여 政府에 의한 誘導의 作用이 어느 정도로 미치며 또한 기대되는가는 중요한 側面이 된다.

셋째는 資本主義的 工業生産體系의 文化的 條件으로서 民族主義문제이다. M. Weber가 資本主義의 發生에 대한 文化的 條件을 프로테스탄트의 倫理로 설명했듯이, 그러한 信念體系의 機能이 일반적으로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는 民族主義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民族主義는 國家社會의 單位로 단절되어 있던 部分을 統合시키며 國家全體의 水準에서 中心的 制度가 機能化하고 分散된 資源을 有機的으로 動員시키는 하나의 條件이 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問題는 傳統이 傳統主義的 逆機能을 하는가의 問題와 地緣과 血緣에 의한 社會的 結合이 반드시 特殊主義的 營利追求에만 기여하여, 반대로 自己利益의 合理的 追求로 全體 共同體의 利益增進에 志向될 수 없는가 하는 問題이다. 이것은 韓國 社會에서 傳統的 家族主義나 同族部落의 性格과 이것이 資本主義的 工業生産體系에서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밝히는 데서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4) R.S. Basi, "Role of "Free Enterprise" Ideology in Less-Developed Countrie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26, No. 2, 1967, p. 175.

#### 4) 技術知識

테크놀로지(Technology)는 항상 實用的 目標의 達成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目標가 없다면 無意味해 진다. 科學은 그렇지 않으나 테크놀로지의 有用性은 항상 自明하다. 그러나 테크놀로지는 目標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발전할 수 없으며, 한편 道德的 態度때문에 目標를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어떤 集團이 어떤 目標를 指向한다면 그 集團은 이 目標에 도달하는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sup>(35)</sup>. 그러므로 테크놀로지의 發展은 근본적으로는 社會的 價値에 달려 있다. 즉 社會秩序가 變動에 긍정적 價値를 부여하며 또는 새로운 考案의 利用을 開放的 態度로 갖는다면 테크놀로지의 改革을 크게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變動은 社會構造나 組織 및 行爲類型에 어떤 變化를 거쳐 오는 것이지만 社會의 成員들 간에 生産性增大에 의한 利益의 極大化라는 目標에 合意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目標에 指向한 테크놀로지의 結果 즉 富의 增大가 곧 모든 個人에게 個人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社會的 地位를 向上시켜 준다는 보장은 없다. 變動은 곧 社會體系와 個人의 社會的 地位에 대한 未來의 不安感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個人의 社會的 地位는 계속 유지되거나 向上되며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채택에 의한 增大된 富의 分配에 더욱 큰 惠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合理化시켜 주는 價値가 制度化된다면 테크놀로지의 變化는 社會構造의 安定性을 기반으로 하여 쉽게 受容될 것이다. 따라서 技術變動을 쉽게 受用하는 文化的 條件으로써 傳統的인 集合의 價値와 形式的인 組織體(Formal Organization)의 經濟的 合理性과의 關係가 극히 重要視된다.

2. 勞動要素: 勞動要素에는 勞動力, 人間의 動機와 技能의 水準이 포함된다. 첫째, 勞動供給에 있어서 資本主義的 工業生産體系에 適應하는 過程에 家族의 機能分화와 함께 家族勞動力이 어떻게 變化되거나 잔존하는가, 그리고 勞動力의 質과 量이 적절히 分布되는데 있어서 制度的 또는 準制度的 要因이 어떻게 作用하는가. 둘째, 勞動力의 誘引은 成果-制裁機制에만 의존하는가 또는 業績에 의한 地位와 報償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經濟單位로 移動해 가며 그 單位에 歸屬感을 갖게 하는 條件은 經濟的 報酬의 어떤 要素에 의하여 규제되는가. 셋째로 技術習得과 準備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3. 資本要素: 資本要素는 資本 또는 즉각적 消費보다는 未來의 生産에 유용한 資源의 水準이다. 資本要素는 開發途上國家에서는 네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考慮할 수 있다<sup>(36)</sup>. 첫째, 저축과 投資決定의 側面으로서 展示效果가 資本形成과 投資에 의하여 갖는 意味에

(35) R. Davis, *Human Society*. (李萬甲, 高永復 譯, 『社會學』, 乙魯文化社, 1964, p. 494).

(36) R. Firth and B.S. Yamey (eds.), op. cit., pp. 381~386.

관한 부분이다. 發展途上國家가 富裕한 社會와의 接觸으로 새롭고 바람직한 消費品目的의 發見이 주는 經濟的 効果는 두가지로 생각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소비자극은 저축과 자본축적을 초과하여 經濟成長을 둔화시킨다는 立場에서 새로운 欲望을 계속해서 채택하고 展示하는 것은 결국 經濟成長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滿足의 充足 欲求는 새로운 努力과 企業을 유발시킴으로서 지속적인 投資를 可能하게 하여 經濟成長을 촉진시킨다는 立場에서 새로운 財貨와 用役을 알고 새로운 欲望을 자극받게 되면 거기에 必要한 貨幣所得에 대한 欲求를 증대시키고 따라서 그 欲求는 資本形成과 같은 活動을 포함한 여러가지 努力과 企業을 効率的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經濟開發政策이 새로운 欲求를 달성코저 하는 目標을 세웠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欲求 充足에 더욱 志向의인가 또는 欲求充足을 어느정도 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欲求를 위하여 어느정도의 즉각적 消費를 지연시키는 志向性을 갖도록 하는 社會的 條件이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條件은 위의 두가지 經濟的 效果 중 後者를 이끌어 주는 條件이 될 것이다.

둘째는 資本市場의 作用에 관한 側面인데, 일반적인 利率의 安定度에 대한 確信이 없을 경우에는 特定部分의 去來에 있어서의 利率을 効率的으로 固定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관계는 兩者간의 經濟的 또는 非經濟的인 社會的 結束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즉 資本市場이 非組織的인 個性的 關係에 基礎를 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私債의 性格과 私債의 去來가 어떤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며, 公式的 金融機關의 대부는 어떤 意味로 受容되는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資金대부도 政府의 信用創出의 機能과 함께 채권자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도 問題이다.

셋째는 經濟的 計算의 側面으로, 利率과 投資決定에 관한 것이다. 資金을 使用하려는 者는 어떤 종류의 經濟活動중에서 돌아 올 수익과 투입될 資本의 利率을 계산해서 어느 活動을 擇할 것이다. 이러한 計算이 어떤 方式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 지는가는 農業 經營體뿐만 아니라 非農部分의 經營體에도 마찬가지로 考慮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經濟活動에 대한 投資가 반드시 수익과 利率만으로 決定되지 않을 때, 그 投資를 決定케 하는 중요한 要素가 무엇인가도 규명되어야 할 問題이다.

넷째, 資本財의 管理와 統制의 側面으로, 資本財의 効率的 使用을 위한 裝置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資本을 낭비적으로 使用하게끔 되어 있는가 또는 資源을 節約해서 使用하는 강한 性向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음 문제는 資本財의 획득과 使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協同的 裝置가 설정되고 運用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는 資本財가 集團에 의해 集合的으로 모이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호신뢰와 다소의 組織技能이 必要하다. 다른 방법은 어떤 個人이 資本財를 모아서 使用者에게 빌려주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어떤 種類의 集團이 資本財를 集合시키며, 또한 특히 새로운 經濟가 생겼을 때 企業目的을 위해 어떤 形態의 社會的 裝置나 制度가 가장 適合한가, 그리고 어떤 種類의 財貨가 저축의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社會的 經濟的變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組織要素: 이것은 組織 또는 生産要素들의 組合과 再組合의 原理이다. 組織에는 組織 자체의 合理性和 그 組織에 參加하는 個人들의 合理的 行爲라는 두가지 機能的 合理性이 要求된다. 市場狀況이 상당히 예측적이고 技術變動이 다소 長期性을 띠울 때는 組織은 機械的 模型을 따르는 것이 適合할 것이지만, 技術變動이 상당히 빠르고 市場狀況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을 만치 變動이 심한 경우에는 組織의 目的 자체가 항상 流動的인데 대한 有機的인 適應性을 요구하게 되는 有機的 模型이 더욱 適合할 것이다<sup>(37)</sup>. 工業生産體系를 설정해가는 過程에 있는 社會에 있어서는 위의 두가지 模型의 組織的 條件을 모두 充足시켜야 하는 立場에 있다. 우선, 이 兩面의 組織合理性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條件은 어떤 것인가를 밝혀 둘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企業家的 機能中에서 統合機能을 傳統的인 家父長的 權威로 수행하려 할 때에 統合의 效果는 生産의 增大, 技術革新의 契機와 受容度 그리고 契約등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중요시해 볼 수 있다.

#### IV. 消 費

우선 消費行爲를 社會學的으로 接近할 때 使用될 수 있는 概念을 H. Roseborough는 機能論的 立場에서 提示하였다<sup>(38)</sup>. 즉 消費行爲에 영향주는 要因들은 社會單位의 機能 즉 適應的 機能, 目的達成機能, 統合機能과 類型維持—緊張管理機能을 다하는데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다. 消費活動은 便益(Facilities)을 획득하거나 使用하기 위한 意思決定에 관한 行爲이다. 便益은 특정한 用途로 使用되는 財貨뿐만 아니라 一般的인 對象 즉 貨幣資金, 購買力 또는 他人의 生産勞力에 대한 合法的인 權力도 포함되며, 이 便益은 行爲遂行的

(37) 機械的 模型과 有機的 模型에 대해서는 S.R. Parker, R. K. Brown, J. Child and M.A. Smith, *The Sociology of Industry*,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7, pp. 72~73.

(38) Howard Roseborough, "Some Sociological Dimensions of Consumer Spending",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6 (1960), 452~464, reprinted in N.J. Smelser (ed., 1965), op. cit., pp. 273~284.

道具의 機能과 所有를 변경할 수 있는 잠재적 機能을 갖고 있다.

그리고 消費者가 購買力을 所有하고 特定한 財貨를 消費하려는 데는 選擇決定過程이 있게 되는데 Roseborough 는 이 過程에 7 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째 단계에는 사람들은 普遍화된 購買力을 受諾할 것인가의 與否를 決定하는 것이다. 둘째는 個人이 그가 屬하고 있는 既存 社會生活의 形態를 受諾할 것인가의 與否를 決定하는 段階이다. 셋째는 이 生活 形態와 관련되어 있는 生活基準을 수용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단계이다. 이 세가지 단계는 個人이 어떤 社會에 屬하여 익숙하게 生活할 때는 거의 無意識的으로 決定해 놓고 있으며 이 세단계의 內容은 그 社會의 文化價値에 의하여 거의 形成된 것이며 個人에게는 社會化 過程에서 傳受받은 것으로 된다. 社會의 類型維持의 機能에 의하여 거의 잠재적으로 普遍화된 것들이다. 나머지 네 단계는 社會制度의 多様な 構造的 組織單位와 관련된 보다 具體的인 選擇決定이다. 즉 넷째는 消費基準의 受諾여부를 決定하는 단계인데, 消費者가 그가 屬하고 있는 社會의 대다수 成員이 便益을 판단하는 基準을 正當한 것으로 받아들리느냐에 관한 것으로, 便益의 質과 性質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消費基準은 社會의 一般的 價値體系에서 연유하는데, 예컨대 便益이 어떤 狀況의 條件을 편리하게 하는데 중요한 價値를 둔다면 祖上이 사용했다는 이유보다는 安穩감과 安樂을 보다 많이 주는 物品을 선택할 것이다. 다섯째는 生活計劃의 水準을 決定하는 단계인데, 消費者는 일단 消費基準을 수락했다면 그 基準과 一致되는 生活水準을 수락하고 決定해야 한다. 이 選擇決定은 消費者가 屬하고 있는 集團의 性質이나 그가 屬하고 있는 集團에서의 役割遂行의 技術的 性質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여섯째, 消費者는 선택한 生活水準에서 可能的 여러 消費水準중의 어느 것을 선택하는 決定을 해야 한다. 이 消費水準의 선택은 그가 받고 있는 役割의 要素들과 예상되는 權利와 義務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는다. 가장 끝단계는 消費者가 선택한 消費水準에 一致하는 財貨와 用役을 評價하는 단계이다. 이 決定은 그가 하고 있는 活動의 內容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社會的 活動은 機能의 分類에 따라 그 어느 機能의 優劣성에 志向되어 있는 것이며 이 機能에 따라서 活動의 네가지 要素를 말할 수 있다. 狀況의 要素는 環境에의 適應性を 강조하는 것이며, 目的要素는 活動目的과 直接 관련되는 政治的 要素이며, 相互作用의 要素는 活動過程에 참가하는 者들간의 상호작용적 요소이며, 情緒的 要素는 動機의 유발과 維持에 관한 것인데, 이 네가지 要素에 의하여 그대로 行爲의 形態로도 分類된다. 儀式 活動은 情緒的 要素에 重點을 둔 것이며, 經濟的 活動은 狀況의 要素를, 社交的 行動은 相互作用의 要素를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財貨와 用役은 特定한 單位行動을 완수하는 수



段이므로 財貨와 用役은 行動에 동원되며 그 活動에서 評價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財貨와 用役의 效用價値는 狀況의 要素에 중점을 둔 活動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 效用價値의에 財貨와 用役은 동원된 活動의 性格에 따라 象徴的 價値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한 社會의 價値體系를 안다는 것은 財貨와 用役의 價値를 評價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다음에 社會活動을 이루는 役割과 消費水準과의 關係를 보면, 어떤 役割이 集團組織의 維持와 安寧에 대한 더 많은 責任을 갖고 있으면 그 役割담당자는 상대적으로 消費水準이 높아진다. 役割의 構成要素를 機能的 分類에 따라 보면, 첫째 行政的 役割要素인데, 이것은 目的의 規定, 一般的 方針에 대한 決定, 決定을 遂行하는데 따르는 責任의 할당과, 필요한 便益의 有用性을 보장하는 權利의 分配등을 포함한다. 둘째 協同的 役割로서, 權利와 責任의 한계를 규정하며 충성심이 維持되도록 하고 갈등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節次를 세우는 것들이 포함된다. 셋째는 監督的 役割要素로서 技術的 用役과 工程의 管理를 감독하는 것, 넷째는 技術的 役割要素로서, 特定한 技術的 義務를 遂行하는 것 등이다. 消費者의 活動이 위의 어느 役割要素를 우선적으로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社長과 工員, 父母와 子女등) 消費水準이 期待된 役割遂行에 대한 購買力의 利用의 文化的 規定에 의하여 달라진다.

消費行爲分析에 대한 한 가지 次元은 集合體에 둘 수 있다. 어떤 種類의 役割複合體(또는 集團)는 그것이 社會全體의 水準에서의 네가지 機能중에 어느 것을 주로 志向하고 있느냐에 따라 消費水準과 樣態를 달리 할 것이다. 適應的 機能, 目的達成的 機能, 統合的 機能과 類型維持的 機能 어느 것을 주로 담당하는 集團은(예컨대 企業體, 政府, 勞動組合, 家族) 그 機能의 遂行에 필요한 財貨와 用役을 동원하여 組織할 것이며 그 集團에 屬한 사람은 그 集團의 目的의 達成에 필요한 便益을 使用해야 할 權利와 義務가 있게 된다. 한편으로 集合體들간의 機能的 重要性에 대한 差異가 있다. 즉 社會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價値를 目的으로 삼는 集團은 報償을 크게 받으면서 制裁도 크게 받는다. 이것을 階層이라도 할 수 있다. 어느 成層에의 所屬은 成層內의 統合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消費면에서도 다른 成層과의 差異를 보이게 될 것이다.

끝으로, 消費基準의 네가지 機能的 側面에 따른 消費行爲의 問題이다. 이 네가지는 生存의 基準, 地位評價基準, 嗜好와 道德的 基準, 保護의 基準이다. 生存의 基準은 文化的 生存을 위한 基準이다. 즉 社會를 永續시키는데 대하여 社會成員의 대다수 또는 전부가 正常的으로 生活하는데 공통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基準으로서 최저한의 營養, 住宅, 衣服 위생, 運動 및 여가에 관한 便益의 消費基準이다. 地位評價基準은 地位를 認定하기 위한

報償과 便益의 使用을 의미한다. 社會的 地位는 그 地位에서 기대되는 役割이 社會的 重要性的 差異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높은 地位는 결국 生存의 基準에 一致하는 便益과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便益의 出現은 地位評價基準이 存在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契機가 된다. 따라서 物品所有에 의한 階層尺度를 이용코저 하는 企圖은 이 地位評價基準을 表示하고저 하는 接近 方法이다. 嗜好와 道德의 基準은 役割의 權利와 義務에서 벗어 나서 緊張을 처리하게 하여 다시 자발적으로 價値體系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基準이다. 여가활동과 오락의 한계에 대한 基準이다. 保護基準은 外的 環境에 대한 예기치 못한 變化에 대처하여 永續하기 위한 것이다. 이 基準에 一致하는 구체적인 便益은 流動資金의 저축, 資本投資, 保險 그리고 宗教的인 것등이 있다. 이것은 適應의 問題로서의 生存基準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消費行爲에 대한 研究는 人類學에서 消費基準의 네가지 機能的 側面에서 記述할 수 있으며, 그러한 方向에서 貨幣經濟와 工業生產體系가 영향을 준 결과를 말 할 수 있다. 社會學的으로는 消費者의 活動, 役割 및 集團에의 參與가 消費基準의 네가지 側面에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더 나아가서 財貨의 效用價値 및 象徴的 價値가 一般價値體系에서 갖는 重要도가 社會構造分化過程(예컨대 工業化)에서 어떻게 變化하여 消費形態를 決定지우는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所得의 變化가 生存基準의 期待上昇으로 展示效果的 消費性向만을 촉진하는가 또는 이와함께 保護基準의 便益 특히 저축과 투자를 함께 유발하는가, 兩者의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志向하고 있는가를 중요시 해 볼 수 있다.

이제까지 經濟行爲에 대한 社會的 接近의 가장 一般的 結果, 生產과 消費에 관한 問題領域을 설정하고저 하였다. 生產과 消費에 관한 問題領域의 設定은 資本主義的 工業生產體系의 形成過程의 條件을 念頭를 두고 하였다. 이러한 問題에 대한 체계적인 社會學的 資料를 발굴하고자 하면 보다 特定化시켜야 할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專任講師〕